지광국사탑 보수 완료… 귀향 준비 마쳤다

국립문화재硏 5년간 보존처리… 모르타르 제거 · 결실부재 대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반출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던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이 본래 모습을 찾고 귀향 준비를 마쳤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는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친 지광국사탑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를 담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 · 복원Ⅲ〉 보고서를 발간해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광국사탑 관련 문화재 정보와 보존처리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온라인 공개키로 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

화려한 만큼 더 아팠던 역사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지광국사탑은 근현대시기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가 탑을 매입했고, 이를 당시 서울 명동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하게 만들었다.

1912년에는 이를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탑을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6.25전쟁은 지광국사탑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 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 · 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해체보수로 새 모습을 찾다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 ·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지광국사탑은 2016년 3월 22일 해체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확인한 석탑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었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었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 · 박리 · 생물 피해 · 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탑신석 수지처리면 미세보정을 하는 모습. 지광국사탑은 5년간의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원주로의 귀향 준비를 마쳤다.

1911년 日人 의해 일본 반출
한국전쟁 폭격 파손 등 고난

2019년 원주로 환지본처 결정
이전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

이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석탑을 완전 해체하고 지금까지 보존처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체부재들을 일일이 기록했으며, 모르타르는 걷어냈다. 결실되어 없어진 부재에 대해서는 신석재로 새로 제작했고, 파손부재들은 접착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관계자는 "새로 구해야 하는 신석재들은 산지(産地)를 과학적으로 추정해 가능하면 조성 당시 사용된 석재와 가장 유사한 재질로 보존처리하고자 했다"면서 "유리건판과 실측도면 등을 바탕으로 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실부분의 도상을 복원했고, 전통기술과 도구를 사용해 가공 · 접합했다"고 밝혔다.

또한, 탑신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옥개석 파손부재 조각과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하층 기단 갑석 조각을 과학적 조사와 고증을 거쳐 원래 위치에 복원했고, 1957년 수리 당시 잘못 복원된 옥개석의 방위와 추녀 위치를 바로잡는 등 과학적 · 인문학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지광국사탑의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탑 이전까지 남은 과제는

제 모습을 찾은 지광국사탑은 이제 본래 자리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지난 2019년 6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에서 지광국사탑의 원주 법천사지 이전을 결정해 귀향은 결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이전 위치 선정은 과제로 남았다.

현재는 법천사지 승탑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보승탑의 원래의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관 내부로 탑과 탑비를 함께 이전해 보존 · 전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원주시는 법천사지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종합 전시 · 홍보하는 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보호각은 사지 주변 경관 저해의 문제점이 있으며, 전시관 이전은 지광국사탑을 보존하는 데 용의하나 복원과 귀향의 역사적 진정성이 문제가 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문화재청과 원주시가 긴밀히 협의해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석조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과학적 보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존처리를 완료한 지광국사탑의 면면. 사진 왼쪽부터 앙화, 옥개석, 탑신석.

한글 불교전서 100권 출간 의의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동국대 ABC사업단 학술대회 1월 29일 비대면 방식 진행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단장 김종욱)이 발간하고 있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이 발간된다. 이를 맞아 그간의 번역 결과와 의의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1월 29일 교내 원흥관 3층 i-SPACE에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기록 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출간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다. 각 시대 별 고승들의 사상과 행적, 불교문화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하고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사업은 2010년 시작됐으며, 불교학술원은 매년 7권 가량의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왔고, 10여 년에 걸쳐 100권 출간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 기념식 및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고, 일반 청중은 유튜브(http://www.dongguk.edu/mbs/kabc/)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다.

기념식은 불교학술원장의 개회사와 윤성이 동국대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김종욱 ABC 사업단장의 경과보고로 이어지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이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대회는 '21세기 한국불교대장경,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 2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원효 저술의 번역 성과와 연구사적 가치(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불가문집 번역의 성과와 의의(김승호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조선시대 불교사와 한글본 한불전의 성과(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교수) △ABC아카이브 현황과 국제적 활용 방안(김성욱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불교전서 보유편 편찬의 현재와 미래(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송일기 前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천학 동국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교수, 김성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은 "한국불교전서의 번역 원고를 모두 간행하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총 200여 권으로 예상되는데, 1월 중 100권이 발간된다. 이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의미에서 출간 기념식과 함께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면서 "전통문화를 이 시대에 재창조하는, 숭고하고 지난한 과정의 역주서 발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